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자 상호작용시 어머니 행동과 관련된 변인 : 결혼 만족도, 자녀양육 스트레스, 애착 안정성

Maternal Behavior during Mother-Child Problem Solving :
Effects of Marital Satisfaction, Parenting Stress, and Attachment Security

박 경 자*
Park, Kyung Ja
권 연 희**
Kwon, Yeon Hee

Abstract

Maternal interactions during mother-child problem solving tasks were analyzed by marital satisfaction, parenting stress, and child attachment security. Forty 36-to 52-month-old children and their mothers were observed at home. Mothers' ratings of marital satisfaction and parenting stress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s, and Attachment Q-set assessed child attachment security.

Marital satisfaction and child attachment security were negatively related to parenting stress. Marital satisfaction, parenting stress, and attachment security were related to maternal behaviors. The relations between child's attachment security and maternal behaviors were mediated by parenting stress. Stronger child attachment security was related to lower parenting stress, which in turn contributed to competent maternal behaviors during problem solving.

Key words : 결혼 만족도(marital satisfaction), 자녀양육 스트레스(parenting stress), 애착 안정성(attachment security), 어머니 행동(maternal behavior)

※ 접수 2002년 4월 30일, 채택 2002년 5월 22일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E-mail : kjpark@yonsei.ac.kr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I. 서론

생애 초기부터 형성되는 애착 안정성은 영아-양육자의 관계에 기초한다. 주양육자가 영아의 신호에 대해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면 영아는 어머니에 대해 반응적이며 애정적인 실행 모델을 갖고, 자신에 대하여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개체로 인식하여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때 발달하는 유아의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 실행 모델은 이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 뿐 아니라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Bretherton, 1985; Sroufe & Fleeson, 1986).

유아의 애착 안정성은 새로운 환경이나 도전적 상황에 대한 유아의 반응 행동과 관련되는데,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한 유아는 어머니를 안전한 기지로 인식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안전감을 갖고 환경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해결해야 할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Bowlby, 1982). Matas 등(Matras, Arend, & Sroufe, 1978)은 18개월의 영아와 어머니간 애착 관계가 영아가 24개월이 되었을 때 문제 해결 과제에서 유아-어머니간 상호작용 행동과 관련됨을 보여주었는데, 안정 애착된 유아는 불안정 애착된 유아에 비하여 문제 해결 과제에 더 열정적,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어머니의 제안에 주의를 기울였다. 즉, 안정 애착된 유아는 과제 해결에 적극적이며, 어머니의 도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유능하게 행동하였다.

또한 애착 안정성은 유아에 대한 어머니 행동과도 관련되었는데, Matas 등(1978)의 연구에서 안정 애착된 유아의 어머니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유아에게 더 높은 정서적 지지를 표현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였다. Stevenson-Hinde와 Shouldice(1995)는 안정 애착된 유아의

어머니들이 인지적 과제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등 민감한 상호작용을 보인다고 하였고, Moss 등(Moss, Gosselin, Parent, Rousseau, & Dumont, 1997)도 안정 애착된 유아의 어머니가 불안정 애착 유아의 어머니보다 과제 해결을 위한 상호작용시 유아와 과제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공유하는 등 적절한 상호작용을 보인다고 하였다. Silverman(1990) 역시 아동의 애착 안정성 점수는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 표현, 온정 및 어머니 자신에 대한 신뢰감과 긍정적 관계를, 어머니의 비민감성 및 회피 행동과 부정적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애착과 유아에 대한 어머니 행동간의 관계는 일방적이라기 보다 상호관련된 것으로, 어머니 행동은 유아의 애착 안정성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고 애착 형성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유아의 애착 안정성은 어머니와의 '관계'이며, 두 사람간의 '관계'란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되어 온 상호작용의 독특한 유형과 질에 의해 결정된다(Elicker, Englund, & Sroufe, 1992). 본 연구에서는 평소 어머니와의 안정된 관계를 나타내는 유아의 애착 안정성이 인지적 과제 해결과 같은 긴장된 상황에서 유아가 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머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상호작용 행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

유아와의 상호작용시 나타나는 어머니 행동은 유아의 애착 안정성 외에도, 유아의 기질과 같은 개인적 요인이나 어머니의 심리적, 맥락적 요인과의 관계가 있다. 특히 어머니의 사회 맥락적 요인에 관심을 지닌 연구자들은 어머니가 지각하는 결혼 만족도 및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같은 변인을 살펴보았다. Belsky(1984)는

부모 행동의 과정 모델에서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부모 개인의 성격과 아동의 기질 뿐 아니라 부부 관계와 사회적 관계망에서의 스트레스와 같은 사회맥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Abidin(1992)은 부모의 양육 행동을 부모와 아동의 개인적 특성 뿐 아니라 부모 역할과 연관되는 스트레스와 대처 자원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즉, 어머니가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높은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에 대한 지원 체계가 부족할 경우 어머니는 아동에 대하여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양육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결혼 관계는 부모가 자녀와 맺는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원 체계로, 배우자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만족은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와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결혼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이 바람직한 자녀 양육과 관련됨을 보여주었다(Cox, Owen, Lewis, & Henderson, 1989; Dielman, Barton, & Cattell, 1977; Goldberg & Easterbrooks, 1984; Lewis, Owen, & Cox, 1988). 즉, 부모가 결혼 생활 전반과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할수록 자녀와의 상호작용시 정서적으로 지지적이고 민감하며, 강압적 행동을 덜 보인다는 것이다. Cox 등(1989)은 첫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 측정한 결혼 관계와 출산 후 3개월이 되었을 때 영아에 대한 부모 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친밀한 부부 관계가 영아와 아버지 역할에 대한 아버지의 긍정적 태도와 관련되며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더 온정적이고 민감한 행동과 관계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Dielman과 동료들(1977)은 부부간의 적대감이 클수록 어머니는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처벌과 같은 강압적 방법을 많이 사용하며, 설명이나 추

론과 같은 합리적인 양육 행동은 적게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Stoneman 등(Stoneman, Brody, & Burke, 1989)의 연구에서도 지지되었는데, 부부간 갈등이 많을수록 어머니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시 보다 통제적이었다.

Belsky(1984)의 이론 모형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 검증한 Crnic와 Greenberg(1990)에 의하면, 부모 역할 수행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일상적 스트레스는 아동 문제와 부모의 정신 건강 및 가족 기능을 가장 잘 예언하였다. 즉, 자녀와의 일상적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어머니 자신의 정신 건강 및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을 잘 설명하여 준다는 것이다. Bigars 등(Bigars, LaFreniere, & Dumas, 1994)은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가 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더 우울하며, 결혼 생활에 부적응을 보일 뿐 아니라, 아동에 대하여 더 부정적, 통제적인 부모 역할을 보인다고 하였다. Mash 등(Mash, Johnston, & Kovitz, 1983)도 학대 아동의 어머니들이 높은 수준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보고하고, 아동과 함께 구조화된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경우 아동에게 더 지시적이고 통제적으로 상호작용함을 관찰하였다. LaFreniere와 Dumas(1995)는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어머니-아동 상호작용 행동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매우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어머니 집단은 낮은 스트레스 집단 뿐 아니라 어느 정도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어머니 집단보다 더 부적절한 어머니-아동 상호작용 행동을 보였다. Ritchie와 Holden(1998)은 3-7세 자녀를 지닌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행동을 예언하는 정도를 살펴보았는데, 연구 결과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지나친 제한과 같

은 부정적 행동 뿐 아니라, 애정 및 보살핌과 같은 긍정적 행동과도 관계가 있었다. 신숙재(1997)가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부모 효능감은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박용임(1995)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에 대한 부당한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중요 변인임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Dumas와 LaFreniere(1993)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어머니가 아동과의 상호작용시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Patterson과 Capaldi(1991)는 어머니 자신의 높은 스트레스가 아동에 대한 주의력 결함과 관계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 및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와의 정서적 유대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유아의 애착 안정성과도 관련된다(Belsky, Rosenberg, & Crnic, 1995; Shaffer, 2000). 어머니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만족하며 생활 전반에서 큰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을 경우 유아와 편안하고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어머니와의 안정되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 유아는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또한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한 유아는 관계에 대한 긍정적 내적 실행 모델을 바탕으로 어머니에게 반응적이고 애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이러한 유아를 키우면서 어머니는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 지각하게 될 것이다. Vaughn 등(Vaughn, Egeland, Sroufe, & Waters, 1979)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에서의 스트레스는 유아의 애착 안정성을 방해하였는데 12개월에 안정 애착된 유아도 가정 내에 높은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 18개월에 불안정 애착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유아가 어머니에게 보이는 부적절한 행동은 어

머니로 하여금 유아에 대해 더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지각하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Shaw 등(Shaw, Winslow, Owens, & Hood, 1998)은 유아의 애착 관계는 가족 체계 맥락 내에서 발달하고 변화함으로써 유아의 애착 안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맥락 체계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가정 내 다양한 부모의 스트레스를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자 상호작용시 나타나는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유아의 애착 안정성과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 및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아의 애착 안정성,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 및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어머니-유아 상호작용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로는 Teti와 동료들(Teti, Nakagawa, Das, & Wirth, 1991)의 연구가 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애착 안정성 점수는 민감하고, 정서적으로 적절하고, 융통적인 어머니 역할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애착 안정성 점수는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을 보여, 안정 애착된 유아의 어머니보다 불안정 애착된 유아의 어머니가 더 많은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지각하였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애착 안정성 및 자녀양육 스트레스 각각과 어머니-유아 상호작용간의 직접적 관계만을 살펴보고 있어, 애착 안정성과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같은 선행 변인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 더욱이, 대부분의 국내 연구에서는 유아의 애착 안정성과 기질과 같은 유아 변인만을 고려하거나(나유미, 1999; 이진숙, 2001),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 양육 스트레스 등과 같은 맥락적 변인의 영향(신숙재, 1997; 전춘애, 박성연, 1996; 유우영, 이숙, 1998)을 살펴는데

그치고 있어, 유아와의 상호작용시 어머니 행동과 관련되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탐색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같은 맥락적 요인 및 유아의 애착 안정성이 인지적인 과제 해결을 위한 모-자 상호작용시 어머니의 행동과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 자녀양육 스트

레스, 유아의 애착 안정성 간에 관계가 있는가?

둘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자녀양육 스트레스 및 유아의 애착 안정성은 모-자 상호작용시 어머니 행동과 관계가 있는가?

셋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같은 맥락적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유아의 애착 안정성과 모-자 상호작용시 어머니 행동간의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신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3, 4세 유아 40명(남아 19명, 여아 21명)과 그의 어머니이다. 연구 대상 선정은 두 가지 경로로 이루어졌다. 먼저 만 1세에 박경자(1999)의 연구에 참여했던 유아들 중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유아 18명과 그의 어머니를 일차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서울시에 위치한 한 곳의 유아교육 기관을 통해 유아의 가정으로 연구 협조 의뢰서를 보내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유아 18명과 그의 어머니 및 눈덩이 표집을 통해 연구 참여에 동의한 유아 7명과 그의 어머니를 선정하였다. 연구 절차상 가정 방문이 요구되어 어머니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임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어머니를 임의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총 43명중에서 조사가 끝까지 진행되지 못하거나 자료가 누락된 대상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대상 유아의 평균 연령은 43개월(36개월~52개월, $SD=3.93$ 개월)이었

다.

연구 대상이 된 유아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3세($SD=2.8$)이었다. 이 어머니들은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대다수 어머니(35명, 87.5%)가 대학 졸업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었다. 연구 대상 어머니 중 24명(60%)은 전업 주부이고 16명은 취업모이며, 취업모의 절반 이상(11명)은 전문직에 종사하였다. 연구 대상 가정의 연수입은 4,500만원 이상이 40%로 가장 많았고 3,000만원 이상이 77.5%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사회경제적으로 중상류층 가정의 특성을 보였다. 연구 대상 유아 중 26명(65%)은 낮 시간 동안의 주 양육자가 어머니이고, 4명(10%)은 조부모, 4명(10%)은 가정부, 1명(2.5%)은 기관, 5명(12.5%)은 주양육자가 둘 이상이었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 행동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으로 해결해야 할 4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그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어머니의 행동을 관찰하였다. 제시된 4가지 과제는 어머니와 남녀 유아 모두에게 흥미있는 것으로 유아가 혼자하기에는 어려워어서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어머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과제는 Erickson, Sroufe와 Egeland (1985)가 고안한 과제를 근거로 토막짜기, 바퀴 달린 사물의 이름 말하기, 도형 블록 맞추기, 미로찾기였다. 모든 과제 해결 상황은 비디오로 녹화하였고, Erickson 등(1985)의 교수전략 평정 척도(Teaching Strategies Rating Scale)에 근거하여 유아와의 상호작용시 어머니 행동을 7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어머니의 행동 특성은 다음의 6개 항목에 대하여 평정하였다.

- ① 정서적 지지 표현 : 어머니가 유아에 대한 긍정적 배려나, 정서적 지지를 표현하는 정도.
- ② 자율성 존중 : 과제 해결 상황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끼어들거나, 어머니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개별성, 동기, 관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행동과 태도를 보이는 정도.
- ③ 구조화/한계 설정 :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어머니의 생각이나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유아행동에 대해 지도력을 발휘하는 정도.
- ④ 적대심 표현 : 유아에 대해 분노, 실망, 거부를 표현하는 정도.
- ⑤ 과제지시의 적절성 : 유아가 과제의 목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힌트를 적절히 제공하는 정도

- ⑥ 유아에 대한 신뢰 : 과제 수행동안 유아가 과제를 잘 완성할 것이라고 믿으며, 또한 유아와 어머니가 과제 해결을 위하여 성공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

각 하위 항목에 대한 평가는 1점에서 7점까지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항목의 행동 특성이 더 많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관찰자간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해 연구 대상의 25%인 10쌍의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에 대해 아동학을 전공하는 두 명의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평정한 점수를 기초로 각 항목별로 Pearson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 평균 .89(범위 .80~1.00)이었다.

2) 결혼 만족도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는 Schumm과 동료들(1983)의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KMSS)로 측정하였다. KMSS는 결혼 생활 전반, 배우자,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묻는 3문항으로 구성된 7점 척도(1점~7점) 평정도구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결혼 만족도의 Cronbach α 는 .92였다.

3) 자녀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PSI)를 번역,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PSI는 하위 척도별로 12문항씩 3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된 36문항으로 이루어진 도구로,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1~5점)로 평정하는 어머니의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PSI 척도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그 근원에 따라 부모의 디스트레스(부모영역), 부모-자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부모-자녀관계 영역),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아동 영역)의 3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하고 있다. 여기서 부모의 디스트레스 측면은 역기능적인 부모 역할 수행을 야기하는 부모 개인의 적응상의 문제를 측정하는 것이며, 부모-자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측면은 자녀에게 실망하거나, 거부당하고 있다는 느낌으로써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부모의 생활에 부정적인 요소로 지각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에 비해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측면은 부모가 다루기 힘든 행동상의 문제를 아동이 어느 정도 지냈는가를 측정함으로써 부모가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을 알려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녀양육 스트레스(PSI)의 Cronbach α 는 .88이며, 하위 척도의 신뢰도는 부모의 디스트레스 .80, 부모-자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81,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83이었다.

4) 애착 안정성

유아의 애착 안정성은 Waters(1987)의 애착 Q-set(AQS) 한국판(이 영, 박경자, 나유미, 1997)을 사용하였다. 애착 Q-set는 90개의 카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머니는 유아의 행동을 특징적으로 가장 잘 나타내는 문항에서부터 가장 특징적이지 않은 문항까지 9개의 파일에 각각 10개씩 카드를 분류한다. 이와 같이 분류된 문항들은 각각 9점(가장 특징적인 유아 행동)에서부터 1점(가장 특징적이지 않은 문항)까지

점수를 받게 된다. 유아의 애착 안정성 점수는 전문가들에 의해 분류된 한국판 준거점수를 이용하여, 준거 점수와 연구 대상 유아에 대한 카드 분류 점수간의 상관계수를 통해 산출된다.

3. 연구 절차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자녀양육 스트레스, 유아의 애착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동학을 전공하는 박사 및 석사 과정 대학원생 2명이 각 유아의 가정을 방문하였다. 유아의 가정은 평균 10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두 번에 걸쳐 방문하였는데, 첫 번째 방문시 관찰자는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을 비디오 녹화하고, 어머니에게 결혼만족도 및 자녀양육 스트레스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방문에서는 어머니에게 애착 Q-set을 분류하게 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Windows용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변인의 전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연구 문제의 분석을 위해서 Pearson의 적률 상관 계수와 부분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해석

먼저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성별로 나누어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는 7점 만점에서 거의 6점 가까운 점

수를 보여 전반적으로 연구 대상 어머니들이 자신의 결혼 생활에 꽤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5점 만점으로

하였을 때, 중간 보다 약간 낮은 점수(1.6~2.6 점)를 보여 어머니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보통 정도의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제 해결을 위한 상호작용시 유아에 대한 어머니 행동 중 긍정적 행동들은 7점 만점에 거의 5점에 가깝게 평정되어 행동 유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머니들이 중간 이상의 적절한 행동을 보였다. 하지만, 적대심 표현과 같은 부정적 행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표준 편차가 커서 어머니의 부정적 행동은 개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에 따라 결혼 만족도, 자녀양육 스트레스, 애착 안정성, 모-자 상호작용시 어머니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와 유아의 애착 안정성은 유아의 성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모-자 상호작용시 어머니 행동의 일부 하위 척도에서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양육 스트레스 중 부모의 디스트레스는 남아 어머니(M=2.6)가 여아 어머니(M= 2.2)보다, 부모-자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은 남아 어머니(M=1.9)가 여아 어머니(M=1.6)보다, 자녀양육 스트레스 총점은 남아 어머니(M=2.3)가 여아 어머니(M=2.0)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남아의 어머니가 전반적으로 여아 어머니보다 더 많은 양육 스트레스를 지각하였으며, 특히 부모 자신의 디스트레스 및 자녀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 상호작용시 어머니의 과제 지시의 적절성(남아 M=4.4; 여아 M=5.4)과 유아에 대한 신뢰(남아 M=4.3; 여아 M=5.3)에서 여아 어머니가 남아 어머니보다 더 높게 평정되었다. 즉, 여아의 어머니가 남아 어머니보다 과제 해결을

위한 유아와의 상호작용시 문제 해결을 위한 힌트를 더 적절히 제공하고, 유아가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을 많이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후 상관 분석에서는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 1> 유아의 성에 따른 결혼 만족도, 자녀양육 스트레스, 애착 안정성, 어머니 행동의 평균과 표준 편차 (N=40)

변 인	점수 범위	남(n=19)		여(n=21)		t
		M	SD	M	SD	
결혼만족도	1점~7점	5.5	.9	5.6	.7	-.30
자녀양육 스트레스						
부모의 디스트레스	1점~5점	2.6	.6	2.2	.5	2.50*
부모-자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1.9	.4	1.6	.4	2.29*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2.4	.7	2.2	.5	1.13
PSI 총점		2.3	.5	2.0	.3	2.54*
애착 안정성	-1점~1점	.48	.18	.54	.19	-.93
어머니 행동						
정서적 지지 표현	1점~7점	4.8	.2	5.3	1.1	-1.18
자율성 존중		5.0	1.3	5.1	1.3	-.45
구조화/한계 설정		4.2	.8	5.0	1.2	-2.03
적대심 표현		1.5	1.2	1.2	.4	1.64
과제지시의 적절성		4.4	.8	5.4	1.0	-3.34**
유아에 대한 신뢰		4.3	.9	5.3	1.3	-2.49*

*p<.05, **p<.01

1. 결혼 만족도, 자녀양육 스트레스, 애착 안정성간의 관계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 자녀양육 스트레스, 애착 안정성간에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적률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와 자녀양육 스트레스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표 2>에 제시된 것과 같이 전체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경우 결혼 만족도는 부모-자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 상관(r=-.31, p<.05)을 나타

내었다. 즉, 어머니가 자신의 결혼에 만족할수록, 자녀에게 거부당한다고 느끼는 등 자녀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 받았다. 유아의 성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는 남아, 여아 어머니 각각 -.31과 -.33으로 중간 정도의 상관을 보였으나, 사례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와 유아의 애착 안정성은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r=.06$, n.s.).

<표 2>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와 자녀양육 스트레스 간의 상관 계수

자녀양육 스트레스	남아(n=19)	여아(n=21)	전체(N=40)
부모의 디스트레스	-.15	.07	-.07
부모-자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31	-.33	-.31*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09	-.33	-.19
PSI 총점	-.21	-.26	-.23

* $p<.05$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애착 안정성 간의 관계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 중 부모의 디스트레스는 남아의 애착 안정성과 부적 상관($r=-.44$, $p<.10$)을 나타내었으며,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는 남아($r=-.72$, $p<.001$), 여아($r=-.63$, $p<.01$)의 애착 안정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총점은 남아의 애착 안정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r=-.64$, $p<.01$)을 나타내었다. 즉, 남아의 어머니가 자신의 개인적 적응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고,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아 전반적인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남아는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반면, 여아는 어머니가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어머니와 안정

된 애착 관계를 맺지 못하였다.

<표 3>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애착 안정성간의 상관계수

자녀양육 스트레스	남아(n=19)	여아(n=21)	전체(N=40)
부모의 디스트레스	-.44*	.06	-.25
부모-자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29	-.20	-.28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72***	-.63**	-.67***
PSI 총점	-.64**	-.37	-.52***

* $p<.10$, ** $p<.01$, *** $p<.001$

2. 결혼 만족도, 자녀 양육 스트레스 및 애착 안정성과 모-자 상호작용시 어머니 행동간의 관계

다음으로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 자녀양육 스트레스 및 유아의 애착 안정성 변인 각각이 과제 해결을 위한 모-자 상호작용시 어머니 행동과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적률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와 모-자 상호작용시 어머니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여아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시 유아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어머니 행동과 정적 상관($r=.54$, $p<.05$)을, 적대심 표현과 부적 상관($r=-.47$, $p<.05$)을 보였다. 즉, 결혼 만족도가 높은 여아의 어머니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시 여아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존중하는 행동과 태도를 보일 뿐 아니라, 분노와 같은 부정적 표현을 덜 하였다. 그러나 남아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는 모-자 상호작용시 어머니 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고, 전반적으로 여아 어머니에 비해 낮은 상관 관계를 보였다.

<표 4>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와 모-자 상호작용시 어머니 행동간의 상관 계수

어머니 행동	남아 (n=19)	여아 (n=21)	전체 (N=40)
정서적 지지 표현	.27	.31	.29
자율성 존중	.25	.54*	.40*
구조화/한계 설정	-.18	.13	-.02
적대심 표현	-.12	-.47*	-.22
과제지시의 적절성	-.15	.22	.05
유아에 대한 신뢰	-.01	.21	.11

*p<.05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모-자 상호작용시 어머니 행동간의 관계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부모의 디스트레스는 어머니 행동 중 과제 지시의 적절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r=-.44, p<.01$)을 나타내었다. 유아의 성에 따라 나누어 보았을 때 남아, 여아 모두 -.33으로 중간 정도의 상관을 보였으나, 사례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부모-자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여아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표현과 부적 상관($r=-.43, p<.10$), 적대심 표현과 정적 상관

($r=.49, p<.05$), 과제 지시의 적절성과 부적 상관($r=-.42, p<.10$), 유아에 대한 신뢰와 부적 상관($r=-.46, p<.05$)을 나타내었다.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는 남아 어머니의 구조화/한계 설정 행동과 부적 상관($r=-.71, p<.001$), 과제 지시의 적절성과 부적 상관($r=-.58, p<.01$), 유아에 대한 신뢰와 부적 상관($r=-.47, p<.05$)을 나타내었다. 반면, 여아 어머니의 경우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는 정서적 지지 표현 행동과 부적 상관($r=-.40, p<.10$), 구조화/한계 설정 행동과 부적 상관($r=-.41, p<.10$), 과제 지시의 적절성과 부적 상관($r=-.37, p<.10$)을 보였다.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총점은 남아 어머니의 구조화/한계 설정 행동($r=-.40, p<.10$), 과제 지시의 적절성($r=-.44, p<.10$)과 부적 상관을, 여아 어머니의 적대심 표현 행동과 정적 상관($r=.40, p<.10$), 과제 지시의 적절성($r=-.53, p<.05$), 유아에 대한 신뢰 행동($r=-.37, p<.10$)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남아의 어머니는 주로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가 인지적인 과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지도력을 발휘

<표 5>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모-자 상호작용시 어머니 행동간의 상관 계수

자녀양육 스트레스	어머니 행동			자율성 존중			구조화/한계 설정			적대심 표현			과제지시의 적절성			유아에 대한 신뢰		
	남 ^a	여 ^b	전체 ^c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부모의 디스트레스	-.07	.04	-.09	-.18	-.07	-.13	-.25	.19	-.16	.06	.29	.21	-.33	-.33	-.44**	-.04	-.07	-.19
부모-자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06	-.43*	-.27	.18	-.31	-.12	.18	-.22	-.12	.20	.49*	.34*	-.01	-.42*	-.34*	.04	-.46*	-.32*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16	-.40*	-.27	-.12	-.07	-.10	-.71***	-.41*	-.59***	.18	.10	.20	-.58**	-.37*	-.50***	-.47*	-.30	-.41**
PSI 총점	-.13	-.35	-.26	-.08	-.20	-.15	-.40*	-.20	-.39*	.18	.40*	.31*	-.44*	-.53*	-.56***	-.24	-.37*	-.39*

^a남아 n=19명, ^b여아 n=21명, ^c전체 N=40명

*p<.10, **p<.05, ***p<.01, ****p<.001

하는 구조화/한계 설정을 덜 보이고, 과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며, 유아가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주지 않았다. 반면, 여아의 어머니는 자녀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 때, 여아에게 정서적 지지를 덜 표현하고, 분노와 같은 적대심을 더 많이 표현하며, 과제에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여아가 성공적으로 과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지 못하였다. 또한 여아 어머니는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에도 여아에게 긍정적 배려나 지지를 나타내지 못하였으며, 유아 행동에 대하여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과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지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전반적인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여아의 어머니는 과제 해결을 위한 자녀와의 상호작용시 더 많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고,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유아가 성공적으로 과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다.

유아의 애착 안정성과 어머니 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남아의 애착 안정성은 모-자 상호작용시 어머니의 구조화/한계 설정($r=.63, p<.01$), 과제 지시의 적절성($r=.76, p<.001$), 유아에 대한 신뢰($r=.66,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여아의 애착 안정성은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표현($r=.45, p<.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안정 애착된 남아의 어머니는 인지적인 과제 해결을 위한 자녀와의 상호작용시 유아에게 어머니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구조화/한계 설정 행동을 많이 보이며,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고, 유아가 과제에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내는 행동을 보인 반면, 안정 애착된 여아의 어머니는 과제 해결을 위한 상호작용시 유아에게 많은 정서적

지지를 표현하였다.

<표 6> 유아의 애착 안정성 점수와 모-자 상호작용시 어머니 행동간 상관계수

어머니 행동	남아 (n=19)	여아 (n=21)	전체 (N=40)
정서적 지지 표현	.33	.45*	.40*
자율성 존중	.16	.15	.16
구조화/한계 설정	.63**	.28	.46**
적대심 표현	-.17	-.01	-.14
과제지시의 적절성	.76***	.27	.49***
유아에 대한 신뢰	.66**	.30	.47**

* $p<.05$, ** $p<.01$, *** $p<.001$

3. 유아의 애착 안정성과 어머니 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매개 효과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결혼 만족도, 자녀양육 스트레스, 애착 안정성 변인은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자 상호작용시 어머니 행동과 각각 유의한 관계를 보였는데, 이들의 관계는 개별적이기보다 상호 관련되어 있었다. 특히, 어머니가 지각하는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애착 안정성 및 어머니 행동 변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에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통제했을 경우 애착 안정성과 어머니 행동간의 관계가 달라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애착 안정성과 어머니 행동과의 관계를 매개해주는지 검증할 수 있다. 애착 안정성과 모-자 상호작용시 어머니 행동간 상관 정도가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통제하였을 경우 달라진다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것과 같이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이 두 변인간의 관계를 매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Baron과 Kenny(1986)의 기본 가정에 의해 어머니 행동 중 자녀양육 스트레스 및 애착 안정성 점수와

모두 유의한 상관관을 보이는 행동만을 선정하여, 애착 안정성 점수와 어머니 행동간의 부분 상관 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통제하기 전의 적률 상관 계수와 비교하였다.

유아의 성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았을 경우, 여아의 애착 안정성과 어머니 행동이 중간 정도의 상관($r=.27\sim.30$)을 보였으나 사례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이는 Baron과 Kenny(1986)의 기본 가정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매개 효과를 검증할 수 없었다. 이에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부분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7>에 제시된 것과 같이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통제하였을 때 애착 안정성은 어머니

행동과 더 이상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즉, 유아의 애착 안정성은 어머니 행동과 관계되지만 이러한 관계는 현재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수준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애착 안정성과 어머니 행동간의 적률 상관 계수와 부분 상관 계수 (N=40)

어머니 행동	애착 안정성 점수	
	적률 상관 계수	부분 상관 계수 (자녀양육 스트레스 통제)
구조화/한계 설정	.46**	.12
과제지시의 적절성	.49***	.25
유아에 대한 신뢰	.47**	.29

** $p<.01$, *** $p<.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와의 과제 해결 상황에서 보이는 어머니 행동이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 자녀양육 스트레스 및 유아의 애착 안정성과 관련되며, 이들 관계는 유아의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또한 유아와의 상호작용시 나타나는 어머니의 행동과 유아의 애착 안정성간의 관계가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연구 문제에 따라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자녀양육 스트레스, 유아의 애착 안정성간에 의미있는 관계가 나타났다.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와 부모-자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한 자녀양육 스트레스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이 나타났으며, 남녀 유아를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도 중간 정도의 상관

($r=-.31\sim-.33$)을 보였으나 사례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결혼 만족도와 자녀양육 스트레스간에 유의한 관계를 보여준 전춘애·박성연(1996), 김기현·조복희(2000)의 결과와 유사하다. 즉, Belsky(1984), Abidin(1992)의 모형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 만족도와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와의 상호작용시 나타나는 어머니 행동에 영향을 주는 맥락으로써 상호관련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배우자와의 결혼 관계에 만족하는 것은 자녀양육 스트레스 중 부모-자녀 관계 영역의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것으로 나타나, Wahler와 Dumas(1989)가 주장하듯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사회적 체계로서 가족 성원간의 모든 관계 맥락이 중요함을 시사하여 준다.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애착 안정성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 남아의 경우 어

머니가 자신의 개인적 적응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고,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자녀는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또한 여아는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높을 때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유아의 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자녀양육 스트레스 중 특히 아동 영역의 스트레스가 유아의 애착 안정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자녀의 기질이 까다롭고, 이로 인하여 자녀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느낄수록 유아는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지지되어진다 (DeMulder et al., 2000; Teti, et al., 1991; Vaughn, Stevenson-Hinde, Waters, Kotsaftis, Lefever, Shouldice, Trudel, & Belsky, 1992). Vaughn 등(1992)은 유아가 적응성이 낮고 활동적일수록 어머니는 유아가 까다롭다고 인지하며, 어머니가 까다롭다고 인지하는 유아들은 불안 애착 집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Pederson 등(Pederson, Moran, Sitkon, Campbell, Chesguire, & Action, 1990)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이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아동 영역과 -.36의 유의있는 부적 상관을 보인다고 하면서, 자녀의 기질적 특성이나 자녀 양육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어머니들이 자녀가 보내는 신호나 요구에 덜 민감하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높은 스트레스는 유아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방해하며 특히 유아의 기질적 특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은 유아와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시기 유아의 애착 안정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어머니가 자녀의 특성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자녀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어야 한다.

둘째,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 자녀양육 스트레스 및 유아의 애착 안정성은 과제 해결을 위한 모-자 상호작용시 어머니가 보이는 행동과 의미있는 관계를 보였다. 먼저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는 여아 어머니의 자율성 존중 행동과 정적 상관을, 적대심 표현 행동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나, 남아 어머니의 행동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유아의 성에 따른 차이는 Cox 등(198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들 연구에서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와 영아의 성간의 상호작용을 회귀식에 추가하였을 때, 여아 어머니의 온정적, 민감한 반응에서 유의한 설명력의 증가를 가져왔지만, 남아 어머니의 경우에는 유의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결혼 만족도나 어머니의 자율성 존중, 적대심 표현 행동에서 유아의 성에 따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아의 경우에만 결혼 만족도와 자율성 존중 및 적대심 표현 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난 것은 사회맥락적 요소로서 결혼 만족도가 인지적 과제 해결과 같은 긴장된 상황에서 여아 어머니의 행동과 더 의미있게 관련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가져온 원인은 추후에 더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어머니 행동간의 관계도 유아의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남아 어머니는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구조화/한계 설정, 과제 지시의 적절성, 유아에 대한 신뢰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여아 어머니는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가 경계선 수준에서 정서적 지지 표현, 구조화/한계 설정, 과제 지시의 적절성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

었고, 부모-자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정서적 지지 표현, 과제 지시의 적절성, 유아에 대한 신뢰와 부적 상관을, 적대심 표현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유아의 성과 모-자 상호작용시 어머니 행동의 하위 차원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에 대한 어머니 행동에 의미있는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다른 연구 결과들(박응임, 1995; 신숙재, 1997; Bigras, et al., 1996; LaFreniere & Dumas, 1995; Ritchie & Holden, 1998)에서도 지지된다. 이는 어머니의 높은 스트레스가 유아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귀인 편파를 가져오고, 나아가 유아와의 상호작용시 적절한 기술 부족을 야기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Dumas & LaFreniere, 1993; LaFreniere & Dumas, 1995). 또한 Patterson과 Capaldi(1991)는 어머니의 높은 스트레스는 아동에 대한 주의력 결핍을 가져온다고 하였는데,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동이 지닌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다고 지각하는 어머니는 유아의 신호에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이는 유아와의 상호작용시 부적절한 행동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한편, 어머니 행동 중 정서적 지지 표현, 적대심 표현과 같은 어머니의 정서적 표현 행동은 여아 어머니의 경우에만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의미있는 관계를 보여 여아 어머니는 자신의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자녀에 대한 정서 표현 방식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아 어머니의 경우,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바람직한 정서 표현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서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완충하여 줄 수 있는 지원체계가 더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유아의 애착 안정성과 모-자 상호작용시 어머니 행동간의 관계 역시 유아의 성에 따라 다

른 패턴을 나타내었는데, 안정 애착된 남아의 어머니는 모-자 상호작용시 구조화/한계 설정, 과제지시의 적절성, 유아에 대한 신뢰 행동을 더 많이 보인 반면, 안정 애착된 여아의 어머니는 더 많은 정서적 지지 표현 행동을 보여주었다. 즉,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남아의 경우, 어머니는 남아와의 상호작용시 과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도력을 발휘하거나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고, 남아가 잘 해낼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구체적 행동을 많이 보인 반면, 여아의 어머니는 문제 해결과 관련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동보다 정서적으로 배려하거나 지지를 보이는 것과 같이 간접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애착 안정성과 어머니 행동간 의미있는 관계는 선행 연구들(나유미, 1999; Barnett et al., 1998; Frankel & Bates, 1990; Matas et al., 1978; Moss et al., 1997; Silverman, 1990; Stevenson-Hinde & Shouldice, 1995)과 유사한 결과이지만, 특히 유아의 성에 따라 애착 안정성과 관련된 어머니 행동 패턴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 흥미로운 결과이다. 더욱이 <표 1>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표현 행동은 유아의 성에 따른 차이가 없으나 과제 지시의 적절성, 유아에 대한 신뢰 행동은 여아 어머니가 더 많이 보여주는 것을 고려할 때, 과제 해결을 위한 유아와의 상호작용시 여아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배려나 지지 표현 행동은 평소 유아와의 관계 패턴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여아의 경우에만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정서적 지지 표현 및 적대심 표현 행동과 의미있는 관계가 나타난 결과와 함께 고려할 때 맥락으로써 '관계'가 여아 어머니의 정서 표현 행동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제안

한다.

셋째, 유아의 애착 안정성과 어머니 행동간의 관계에서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 애착 안정성과 어머니의 구조화/한계 설정, 과제 지시의 적절성, 유아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행동간의 관계가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 애착된 유아의 어머니일수록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지각하며 이것이 다시 과제 해결을 위한 모-자 상호작용시 어머니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유아에 대한 어머니 행동에서 어머니의 관계 스트레스의 중요성을 강조한 LaFreniere와 Dumas(1995)의 주장에 의해 지지되는데, 맥락으로써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와 어머니간의 상호작용 행동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이며 따라서 바람직하지 못한 어머니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어머니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지원 체계가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어머니간 안정된 애착 관계 형성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이미 오랫동안 일상적 상호작용을 통해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한 유아의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움이 덜 하다고 지각하며 이러한 어머니의 낮은 자녀양육 스트레스 지각이 과제 해결과 같은 긴장된 상황에서 유능한 어머니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와의 안정된 애착 관계가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수준 및 유아와의 상호작용 행동에 지속적으로 관계됨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영아기를 넘어서 유아기 이후에도 애착 안정성은 유아 자신의 유능한 행동을 가져올 뿐 아니라, 유아에 대한 어머니 지각에 영향을 미쳐 안정 애착된 유아에 대해 어머니

는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느끼며, 과제 해결을 위한 유아와의 상호작용시 유능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어머니 행동과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직접적 관계는 개인의 행동을 이해할 때 그 개인이 처한 사회 맥락적 요소로서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의 중요성을 시사해 준다. 유아가 성장함에 따라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혹은 가르치는 자로서 어머니 역할의 비중은 점차 높아진다. 어머니의 행동 방식은 평소 유아와의 안정된 관계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에 따라, 자녀양육의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가 유아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 뿐 아니라 인지 발달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유아의 사회정서적, 인지 발달을 가져오는 유능한 어머니 행동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지속되어 온 유아와의 관계 경험 및 어머니 자신의 사회맥락적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본 연구는 중상류 가정에서 가정방문을 허락한 어머니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대상 어머니들의 대부분이 아동에게 관심이 많은 어머니들로 비교적 긍정적인 집단이었다. 또한 대상 표집 수가 적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어머니 행동을 관찰을 통해 측정된 것과 어머니의 관계 맥락으로써 유아와의 애착, 결혼만족도,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같은 다양한 변인을 살펴보고 이들 변인이 관련되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기현 · 조복희 (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변인 탐색. *아동학회지*, 21(4), 35-50.
- 나유미 (1999). 문제 해결 과제에서의 어머니-유아 상호작용과 관련 변인 : 애착과 기질. *아동학회지*, 20(4), 75-89.
- 박응임 (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3), 117-129.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유우영 · 이숙 (1993). 유아의 사회적 적응과 관련변 인간의 인과관계 : 양육스트레스원, 사회지지,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65-78.
- 이진숙 (2001). 어머니의 온정 및 통제와 유아의 애착 안정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9(6), 41-49.
- 전춘애 · 박성연 (1996).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5), 115-129.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lsky, J., Rosenberger, K., & Crnic, K. (1995). The origins of attachment security : "Classical" and contextual determinants. In S. Goldberg(Ed.), *Attachment theory : Social development, and clinical persons*(pp. 153-183). London : Analytic Press.
- Bigras, M., LaFreniere, P. J., & Dumas, J. E. (1996).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parent and child scales of the parenting stress index.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7(2), 167-178.
- Bowlby, J. (1969/1982). *Attachment and loss : Vol. 1. Attachment*. New York : Basic Books.
- Bretherton, I. (1985). Attachment theory : Retrospect and prospect.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Vol. 50(1-2, Serial No. 209).
- Cox, M. J., Owen, M. T., Lewis, J. M., & Henderson, V. K. (1989). Marriage, adult adjustment, and early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0, 1015-1024.
- DeMulder, E. K., Denham, S., Schmidt, D., & Mitchell, J. (2000). Q-sort assessment of attachment security during the preschool years : Links from home to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36(2), 274-282.
- Dielman, T., Barton, K., & Cattell, R. (1977). Relationships among family attitudes and childrearing practice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0, 105-112.
- Duams, J. E., & LaFreniere, P. J. (1993). Mother-child relationships as sources of support or stress : A comparison of competent, average, aggressive, and anxious dyads. *Child Development*, 64, 1732-1754.
- Elicker, J., Englund, M., & Sroufe, A. (1992). Predicting peer competence and peer relationships in childhood from early parent-child relationship. In R. D. Parke & G. W. Ladd(Eds.), *Family-peer relationships : Modes of linkage*(pp. 77-106). Hillsdale, NJ : Erlbaum.
- Erickson, M. F., Sroufe, L. A., & Egeland, B. (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and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 in a high-

- risk sample.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Vol. 50*(1-2, Serial No. 209).
- Frankel, K., & Bates, J. E. (1990). Mother-toddler problem solving : Antecedents in attachment, home behavior, and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61*, 810-819.
- Goldberg, W. A., & Easterbrooks, M. A. (1984). Role of marital quality in toddler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0*, 504-514.
- LaFreniere, P. J., & Dumas, J. E. (1995). Behavioral and contextual manifestations of parenting stress in mother-child dyad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6*(1), 73-91.
- Lewis, J., Owen, M. T., & Cox, M. J. (1988).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 Incorporation of the child into the family. *Family Process, 27*, 411-421.
- Mash, E. J., Johnston, C., & Kovitz, K. (1983). A comparison of the mother-child interactions of physically abused and non-abused children during play and task situation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2*, 337-346.
- Matas, L., Arend, A. A., & Sroufe, L. A. (1978). Continuity of adaptation in the second year :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and later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49*, 547-556.
- Moss, E., Gosselin, C., Parent, S., Rousseau, D., & Dumont, M. (1997). Attachment and joint problem-solving experiences during the preschool period. *Social Development, 6*(1), 1-17.
- Patterson, G. R., & Gapaldi, D. M. (1991). Antisocial parents : Unskilled and vulnerable. In P. A. Cowan & M. Hetherington(Eds.), *Family transitions*(pp. 195-218).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 Pederson, D. R., Moran, G., Sitko, C., Campbell, K., Ghesquire, K., & Action, H. (1990). Maternal sensitivity and the secur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 A Q-sort study. *Child Development, 61*, 1974-1983.
- Ritchie, K. L., & Holden, G. W. (1998). Parenting stress in low income battered and community women : Effects on parenting behavior.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9*(1), 97-112.
- Shaffer, D. R. (2000).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pp. 139-145), 4th ed. Belmont, CA : Wadsworth.
- Shaw, D. S., Winslow, E. B., Owens, E. B., & Hood, N. (1998). Young children's adjustment to chronic family adversity : A longitudinal study of low-income famili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7*, 545-553.
- Silverman, N. (1990). *Attachment, maternal behavior, and preschool competence at age thre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Massachusetts, USA.
- Sroufe, L. A., & Fleeson, J. (1986). Attachment and the construction of relationships. In W. Hartup & Z. Rubin(Eds.),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 (pp. 51-71). Hillsdale, NJ : Erlbaum.
- Stevenson-Hinde, J., & Shouldice, A. (1995). Maternal interactions and self-reports related in attachment classifications at 4.5 years. *Child Development, 66*, 583-596.
- Stoneman, Z., Brody, G. H., & Burke, M. (1989). Marital quality, depression, and inconsistent parenting : Relationship with observed mother-child confli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 105-117.
- Teti, D. M., Nakagawa, M., Das, R., & Wirth, O. (1991). Security of attachment between preschoolers and their mothers : Relations among social interaction, parenting stress, and mothers' sorts of the attachment Q-set. *Developmental*

- Psychology*, 27(3), 440-447.
- Vaughn, B. E., Egeland, B., Sroufe, L. A., & Waters, E. (1979).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ttachment at 12 and 18 months : Stability and change in families under stress. *Child Development*, 50, 971-975.
- Vaughn, B. E., Stevenson-Hinde, J., Waters, E., Kotsaftis, A., Lefever, G. B., Shouldice, A., Trudel, M., & Belsky, J. (1992). Attachment security and temperament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 Some conceptual clarific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63-173.